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우)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니동 114-8
(02)765-3011~3 www.kr.emb-japan.go.jp





Photo :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제4회 일한중 정상회의

5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2시간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제4차 일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의장), 마쓰모토 외무대신, 가이에다 경제산업성 대신, 후쿠야마 내각관방 부장관 등, 중국의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등이 참석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정상선언 및 부속문서 채택

회의성과로서 일한중 정상회의의 정상선언 및 '원자력 안전 협력' '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추진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재협력' 의 3개 부속문서를 발표했다.

2. 3국간 협력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우선, 간 총리의 제안으로 참가자 전원이 이번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분들을 위해 1분간 묵념했다. 그 후, 간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지원과 연대 표명, 특히 전달 두 정상이 뻘뻘한 일정 속에서 센다이(仙台)와 후쿠시마(福島) 피해 지역, 대피소를 방문한 것은 이 지역과 일본 전체의 안전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간 총리는 일본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하락세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를 설명하며, 이번 지진을 '위기 속의 위기'에서 부활하고 일본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사회로 재생시킬 기회로 삼고, 여러 외국의 활력도 받아들여 부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한중 양국 정상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에 애도와 위로를 표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정대로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한 일본 측의 노력에 감사한다, 일본의 부흥을 위해 가능한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1)원자력 안전

간 총리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사고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투명하게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정보 공유 등을 통한 3국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 물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대응을 요청하고, 일본의 부흥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중 양국에서 지금까지처럼 일본을 방문, 일본 상품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3국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원자력 안전협력'에 관한 합의문서를 발표했다.

(2)재생 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의 추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간 총리는 일한중 3국은 기후변화문제, 자원 제약에의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고,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3국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책의 관점에서도 저탄소 기술, 제품 보급 등을 통한 협력이 적절히 평가되는 체제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3)방재

간 총리는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방재분야에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는 ①홍 련 실시, 능력 향상 ②해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확보 ③인 급 지원팀과 물자 파견, 수용 조정의 원활화 ④방 재 에 관한 기술 추진과 정보 공유의 강화를 추진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일한중 협력사무소 활용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 양정상도 마찬가지로 3국 방재협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앞으로 3국이 협력해 가기로 합의, '방재 협력'에 관한 합의문서를 발표했다.

(4)경제성장

3국 정상은 일한중 투자협정의 조기실질합의를 지향하기로 뜻을 함께하며, 일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를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간 총리는 한중 관광객이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일본의 부흥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있으므로, 한중 관광객이 다시 일본을 방문하도록 양국 정상의 협력을 바란다. 또한 2015년까지 3국간 인적교류 규모 2,600만 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 총리는 희토류를 비롯하여 광물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긴밀히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3국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대화, 협력을 더욱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 총리는 세관 당국간 협력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5)인적, 문화교류

간 총리는 어느 나라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야말로 인적,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차원의 유대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3국 대학간 교류 증진을 위해 '캠퍼스 아시아'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중한 양국 정상도 인적,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6)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

간 총리는 지난해 환경장관회의에서 책정된 3개국 공동행동계획을 언급하며, 황사와 바다 쓰레기대책 등 환경협력을 더욱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 총리는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COP10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3국이 착실히 추진하자고 말했다.

(7)간 총리는, 해양안전확보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3국에 매우 중요하며, 일중 양국간 해상수색구조협정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3국을 둘러싼 바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3국이 협력하자고 발언했다. 또한 간 총리는 개발경험을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개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일한중 협력사무국 설립 협정의

발효를 환영하며, 조기 출범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다.

3. 지역, 국제 정세

(1)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제반 현안의 해결을 위해, 북한(북조선)으로부터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3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간 총리는 북한(북조선)의 우리농 농축 활동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6자회담 공동 성명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유엔 안보리 등의 자리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간 총리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외교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북한(북조선)은 조속히 남북대화에서 지난해 두차례의 도발행위와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다음, 6자회담 약속을 진지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간 총리는 납치문제해결을 위해 한중 양국에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다.

(2)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간 총리는, 일미동맹을 외교기축으로 하면서 기존 지역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열린 형태로 중층적인 지역협력을 강화해갈 생각임을 밝혔으며, 일한중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간 총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계기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니, 기존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정치, 안보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3) 군축, 비확산

간 총리는 핵 군축, 비확산, 핵 보안, 원자력 안전활동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핵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시아의 핵심으로서의 책무이며, 2010년 NPT 운용검토 회의 행동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국 정상은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보안정상회의를 위해 협력해 갈 것을 확인했다.

(4) 국제경제 정세

간 총리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개발문제 등 새로운 과제에 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각국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원자재가격 상승은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이라는 전망에 의견이 일치하고, 11월 G20 칸느 정상회의를 위해 일한중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일한 정상회담

5월 22일(일요일) 오후 4시부터 약20분간 간 총리는 일한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참석자 : 일본측 마쓰모토 외무대신, 가이에다 경제산업성 대신, 후쿠야마 내각관방 부장관, 무토 주한일본대사 외, 한국측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 권철현 주일한국대사 외)

1. 일한 관계

- (1)모두에 간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피해지역 방문을 포함, 한국이 이번 지진에 대해 큰 배려와 지원을 해준데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일본 지진은 유례없는 일이었는데, 재해지역 분들이 의연한 태도로 임하며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간 총리의 지도력 아래, 반드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가능한 한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 (2)양국 정상은 '일한 원자력 안전 이니셔티브' '동북지방 부흥 관광을 위한 일한 파트너십' 등 원자력 안전, 방재, 부흥, 관광 분야의 협력을 앞으로도 더욱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3)간 총리는 다시금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초청했으며, 양국간에 계속 조정해가기로 했다.
- (4)일한 경제관계에 대해, 간 총리는 양국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한 EPA에 대한 조기협상재개를 촉구, 일한간에 다시 조정해가기로 했다.
- (5)또한, 양 정상은 일한 안보, 방위협력, 젊은 세대의 교류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2. 북한(북조선) 정세

양국 정상은 일한, 일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북한(북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우리농 농축활동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며, 이런 맥락에서 일한미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간 총리는 한국의 납치문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도 납치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해와 협력을 피력했다.



Photo :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일본에 꼭 와주세요



동일본 대지진 재해가 발생한 지도 세 달남짓 지났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수많은 한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정성 어린 지원과 따뜻한 격려가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긴급구조대 파견, 기업 및 일반인의 지원과 모금, 거리에 내걸린 '일본 힘내라!'는 현수막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일본 국민을 대신해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 피해를 원활히 복구하고 활기찬 일본을 되찾기 위해선 많은 한국 분들이 예전처럼 관광과 비즈니스로 일본을 방문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활동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완전히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6일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등록이 결정된 이와테현 히라이즈미(岩手県 平泉)는 지리적으로 동북지방의 중심부임에도 피해를 면해 내국인 관광객은 증가세인 모양입니다. 또 피해를 봤던 도호쿠신칸센도 4월 29일 전 구간이 복구되어, 3월에 개통된 규슈신칸센과 더불어 남북으로 가고시마에서 아오모리까지 모두 연결이 되었습니다.

공항도 피해를 입은 센다이 공항을 제외하고는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미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아키타 편 운항이 지난 5월 2일부터 재개되었으며, LCC(저가 항공사)도 일본 노선에 잇따라 취항하고 있습니다.

일본하면 '미식(美食)'을 떠올리는데, 최근에는 스시나 니혼슈(일본술) 외에 라면이나 소주, 초콜릿 같은 과자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들

의 원료인 농산물은 정부와 지방 공공단체가 엄격한 검사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수입되는 일본식품 또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진재해 직후 활기를 잃었던 도쿄의 쓰키지 어시장은 지금은 전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등산, 골프, 온천 등의 레저 면에서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일본의 골프장에서는 한국의 남녀 프로골퍼들이 대활약하며 일본의 골프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관광지에서는 여러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현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은 최저 120만원 정도인 홋카이도 여행 상품이 69만 9000원부터 판매되는 등 지금으로 저비용으로 일본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날씨도 좋을 때라 홋카이도 여행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5월 연휴기간 중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항공편 승객 수는 작년보다 8% 정도 줄었지만, 국가·지역별로는 일본이 최다라는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또 일상 생활 복귀로 한국을 찾는 일본 여행객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노선 탑승률이 일본의 황금연휴 이전과 비교해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대만, 태국 등지에서도 일본 투어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5월 일본에서 개최된 일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관광교류가 주요 의제의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민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나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구와 부흥을 위한 가장 큰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 오셔서 '끝없는 감동과 만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진가를 마음껏 누리세요.



일한중 관광장관회의 개최 -차기회의, 2012년 일본 도호쿠지방에서 개최 결정

5월 28일(토)~31일(화)까지 4일간 제6회 일한중 관광장관회의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입후보한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일한중 관광장관회의는 일본, 한국, 중국 3국간의 관광에 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3국간 인적교류의 확대, 지역경제의 번영과 사회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개최한 것을 계기로 매년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민간 관광관련사업자, 지방공공단체 등 100여명 정도가 참가(3개국에서 약450명) 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발전했으며, 관광장관회의와 더불어 민간포럼이나 관광자원시찰도 이루어진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의 오하타 아키히로(大畠章宏) 국토교통대신·관광입국담당대신, 한국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국의 샤오치웨이 국가여유국 국장이 참석했다.

29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일본의 지진 및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보내준 지원에 감사하면서 부흥을 향한 일본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오하타대신은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일본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이 와 주시는 것이 일본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며 직접 부탁했다.

또한, 관광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의 구축, 일한중 관광교류 규모의 확대를 위한 ‘Tourism Vision 2020’의 수립 추진, 일한중 공정관광 이니셔티브의 추진, ‘일한중 관광골든루트 10선’ 등 일한중 관광교류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관광장관회의의 결과는 스키점프대로 장소를 이동해서 개최된



서명식에서 ‘평창 선언문’으로 서명되었다. 오하타 대신은 일본의 국회 일정관계로 오찬 후 먼저 일본으로 귀국했고, 미조하타 히로시(溝畑宏) 관광청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선교장, 월정사, 정동진, 썬크루즈 리조트, 남이섬 등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시찰하며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남이섬에는 3국 장관이 자필로 쓴 ‘우정’이라는 초석의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춘천을 방문하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란다.

차기 일한중 관광장관회의는 2012년 가을 무렵 일본의 도호쿠지방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한국 국민 여러분께 부흥한 도호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차기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껏 준비하여 맞이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국제도시 제주에 부임하여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 마츠이 사다오(松井貞夫)



저는 지금껏 외교관 생활에서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에서 8년 만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언젠가는 꼭 한 번 근무해 보고 싶었던 제주에 5월초 부임했습니다. 제주에는 출장이나 여행으로 몇 차례 방문한 경험이 전부입니다만, 매번 제주를 찾을 때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었습니다.

제주는 화산섬이라는 지리환경과 탐라국(耽羅國)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의 지리·자연환경은 많은 시련으로 작용했지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간 상부상조하고, 근면·절약하는 삶의 방식은 제주인의 수놓음(품앗이, 제주방언)과 조냥(절약, 제주방언)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독특한 신화, 민속신앙, 세시풍속, 해녀문화 등은 제주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최고의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네스코 자연 과학 분야 3관왕 달성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재단' 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일한중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가 잇달아 개최되는 등, 연간 100여 차례 국제회의가 열리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5월 한 달만 하더라도 당관이 지원해야 하는 6건의 국제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되어, 일본에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로 바쁘게 지내면서 제주의 역동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 등 예로부터 깊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특히 제주4·3사건을 전후로 많은 수의 제주인이 일본으로 도향하게 되어, 현재도 재일한국인 중 제주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약 18만 8천명(2010년 기준)의 일본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고,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일본과 지자체 및 단체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어 교육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 제주시내 일도초등학교의 경우 일본어 수업을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수업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한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하토야마 당시 총리 부인이 직접 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힐 수 있도록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각종행사와 강연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 18일부터 7월 26일에 걸쳐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이와사키 치히로(IWASAKI CHIHIRO) 전'을 비롯하여, 7월 31일 '일본가요대회', 8월 10일부터 동월 19일까지 '90년대 일본 회화전', 9월 3일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 그리고 10월에는 '일본어번론대회'를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관이 준비한 행사에서 많은 추억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취미가 걷는 것(요즘은 멋있게 '워킹'이라고 한다지만)이라 여유가 있을 때마다 관저 주변을 비롯하여 멀리 해안가와 부두까지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명관광지 뿐만 아니라 제주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올레길과, 지난 4월에 개방된 '한라산 둘레길 1구간' 등 제주의 길이라는 길을 모두 제패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와 일본간의 교류촉진 및 관계발전, 나아가서는 일한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 요덴 유키오(余田幸夫)



5월 상순, 전 근무지인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온 재부산일본국총영사 요덴 유키오(余田幸夫)입니다. 이번이 3번째 부산 근무입니다. 약 10년 전 부산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쿄의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부산 출신 한국인유학생 故 이수현 씨가 희생되었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었는데 이번에 故 이수현 씨를 기리는 일한청소년들의 교류활동이 양국에서 면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인과 부모님, 그 취지를 이어 일한교류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부산에서의 첫 공식행사로 부산시립묘지에 있는 故 이수현 씨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에는 제주도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영남지역의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격려와 따뜻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일본 대지진 이래, 한국에서 일본 특히 규슈를 방문하는 한국 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슈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70% 이상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은 동북지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농수산물, 공업제품에 대해서 현재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있는 물품이 일본시장에 나오거나 수출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규슈지방 대부분은 부산시보다 일본의 피해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일본의 부흥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이제까지보다 더 많이 일본을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경상남북도, 대구광

역시, 울산광역시의 이른바 영남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 근무 이래, 영남지역의 눈부신 발전과 이 지역과 일본의 교류가 한층 깊어진 데는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취급량을 자랑하는 부산항, 한국유수의 관광리조트지 부산해운대의 초근대적인 고층 빌딩군, 부산·진해, 포항, 구미의 '부품, 소재전용공업단지' 등 이 지역은 한국의 총인구·GDP의 약 30%, 총수출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 지역은 현재 40곳에 이르는 일본의 시정촌(市町村)과 자매도시관계에 있으며 긴밀한 지역 간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사업·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부산에서 펼쳐지는 '조선통신사 축제'에는 후쿠오카, 쓰시마, 시모노세키 등에서 많은 일본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오랫동안 쌓아온 일본과의 교류 결과, 현재 '후쿠오카·부산 초광역경제권'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이 지역과 일본의 무역, 투자, 관광 등의 경제교류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관계는 현재 국경을 넘어 선 하나의 경제권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시대 일한 공존공영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키워온 일한간의 각종 교류와 일한 양국 시민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기업의 연대를 더욱 촉진하여 일한 양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경제권'을 이 지역에서 만들어가는데 미력하나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은 인정, 일본인은 배려

소녀처럼 꾸밈없이 맑게 웃을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계획과 꿈을 갖고 있는 서강대 신혜경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참된 리더의 삶이란 무엇이며,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오늘 서강대에서 무토(武藤) 대사 강연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선, 강연 내용이 알찼다. 흔한 내용이 아닌데다 따뜻한 눈으로 양국을 바라보고 계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 중에는 감동한 학생도 있었다. 질문도 대단히 적극적이어서 수업종료 시간을 넘길 정도였다. 대사님도 매우 만족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강연 후 보통은 하지 않는 기념 촬영까지 있었다.

일본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은가?

서강대의 연계전공(3개 전공 중 하나) 가운데 일본학은 항상 상위 2위다. 그만큼 학생들이 열의가 있다. 일본학은 연계전공이었는데 내년 부터는 일본학과로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사람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다’ 는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자 이문화관이다. 일본의 조지(上智), 아오야마(青山), 메이지(明治)대학에서 3년간 가르치며 나도 사람이라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편파적이지 않게 중간에서 양국을 객관적으로 가르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준 사람은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의 손자로서 자유기도가인 이누카이 미치코(犬養道子) 씨다. 많은 나라를 둘러 보고 밖에서 일본을 본 사람이다. 나도 한국인이라 일본에 가기 전까지는 일본에 대한 편견, 선입관, 역사를 통해 배운 일본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누카이 미치코 씨의 책을 보고 눈이 확 트였다. 그 때부터 일본에 대한 이해기에 들어갔다. 이문화를 접하면 흥분기 → 실망기 → 이해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해기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이 책 덕분이다. 이번에 내가 출판한 책도 한국 분들이 일본, 일본문화, 일본인, 일본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학 주임으로서 여러 커리큘럼을 만들며 책에 적혀있지 않은 일본에서 배울 점, 좋은 점을 전하고자 했다. 일본에서 돌아와 친구들은 만나면 꼭 일본은 어떤지, 일본인은 어떤지 물었다. 그 때마다 나는 일본의 배울 점, 장점을 전했는데 이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전부 좋으나 하면 그렇지만은 않다. 이에 대해 정면으로 일본인에게 말하기도 했다. 귀국 전, 일본과 한국의 언어문화 사회를 비교하는 강연을 통해 일본에 대해 귀가 아플 정도로 솔직하게 말하자. 모두가 그렇다는 듯이 듣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손님을 자택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 때는 꼭 일본인과 한국인을 함께

불렀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일본과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 이야기가 나오고,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애가 일본의 그리스도교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 옆이 국가공무원 사택이라 일본공무원들 과도 알게 되었는데, 김치 담그는 법이나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가르치기도 했다. 이것이 민간외교가 아닐까.

목표하는 리더십이란?

5월 31일에는, 8월말로 현역교수에서 명예교수가 되기 때문에 고별 강연을 했다. 강연 제목이 ‘젊은이의 리더십’이다. 우선,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사람 위에 서지 않고 봉사하는 리더, 사람 위에 서지 않고 겸허하게 시중을 드는 리더십’이다.

1960년대까지는 일류대학을 나와 일류기업에 들어가면 출세한 것이고, 출세한 사람 위에 서는 것, 리더가 되는 것이었다. 그 때와 지금은 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시중을 드는 일이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다. 우리 집에서도 남편이 아이들에게 강조하곤 했는데, 현 시대는 이 점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공부, 일류대학, 일류기업만을 목표로 하여 단기간에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으로 섬김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역할은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2008년 10월 24일 일한여성회의 초청 심포지엄에 전국여교수연합회에서 12명이 참석했으며, 양국 대표로 평론가인 히구치 게이코(樋口 恵子) 씨와 내가 30분씩 강연을 했다. 이 때 일한문화포럼이 창립되었으며, 한국에서는 6월 3일 서울대 이강좌 총장과 내가 발기인이 되어 한일문화포럼 창립식을 개최했다. 한일문화포럼이 소프트라면 이러한 활동을 할 하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올 10월 내가 설립할 한일문화연구소이다. 가장 가까운 나라면서도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뼈격거리는데, 내가 무엇인가 도울 일은 없을까? 일본과 한국의 인적 문화적 교류로서 실질적인 주제를 갖고 형식적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가 가서 진심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일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므로 이를 통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이 내 역할이자 라이프워크다.

이번에 출간한 ‘신혜경 교수와 함께 읽는 일본문화’ 는 어떤 취지로 내게 되었다.

2004년 양국의 20~60대를 대상으로 상대국의 장단점과 자기 나라의 장단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조사를 했다.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한국인의 장점을 ‘인정’이라 했고, 일본인의 장점을 ‘배려’라 했다. 이것이 나의 희망이다. 1978년부터 15년간 일본에 살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본과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느꼈다.



지금도 1년에 몇 차례 일본을 방문하는데 갈 때마다 정말 문화의 차이를 느낀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휴양소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역에 내릴 때부터 문화의 차이를 느꼈다. 역 화장실에 들어가니 사람의 손길,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또 조시대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는데 '나올 때는 반드시 불을 꺼주세요' 라고 적혀있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밑바탕에는 이러한 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없는 교실에 전기는 물론 에어컨도 켜져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약정신, 공동체정신, 다른 사람의 물건도 학교의 물건도 절약하는 정신 이것이 배울 점이라고 보는데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몸에 배인 것이다.

대중탕에 가면 일본의 어린이는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지만, 한국 어린이들은 위험하게도 뛰어다닌다.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니 내가 뭐라 할 수도 없어 지켜보기만 하는데, 이 역시 문화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는 그런 것이다. 예술이나 미술만이 아니라 생활문화, 음식문화 이 모두가 문화에 들어간다.

일본인의 특성 가운데 혼네와 다테마에, 네마와시, 아리가타이 메이와쿠 등에 대해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혼네와 다테마에(本音と建前, 본심과 명분)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나의 실패담이기도 한데, 조시대에서 공부할 때 혼자 점심을 먹기 싫어 가장 상냥해 보이는 사람에게 같이 먹자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정말 약속이 있나 싶었지만 나중에 '아 이것이 사교적인 거절방법. 다테마에구나' 본심은 같이 먹고 싶지 않은 거겠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니까... 라고 알게 되었다.

어떤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과 상대하다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여성에게 주말에 시간이 있냐며 물자, 일본인이라면 '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라고 할 텐데, 한국 여성이 '나 다른 약속 있어. 시간 없어' 라고 말해 일본인 유학생이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일본의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부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휴양소를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갈 때 껌씹 절임 등을 가져가 부인이 계곡에서 자란 물냉이를 선물로 주는 등 친해졌다. 헤어질 때 '신상, 나중에 올 때는 아들을 거치지 말고 직접 연락해 주세요' 라고 했다. 일본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엄마 그건 다테마에죠' 라는 것이다. 지금도 의문이긴 하지만 나는 이걸 본심이 아닐까 싶다.

일본어를 잘 모르는 분은 아리가타이 메이와쿠(ありがとう), 달갑지 않은 친절)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고맙긴 한데 폐가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다. 1990년 취재 협력자 도쿄예대 나가니시(中西) 선생을 방문하여 '쇼쇼인 관련 책을 보면 옛날 일본의 귀족은



수저를 사용했는데 왜 지금은 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옷칠을 한 그릇에 닿는 감촉을 즐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갔을 때 친구가 식당으로 데려가 줘서 내가 좋아하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나오자마자 내 말도 듣지 않고 고추장을 넣어 비비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나물 하나하나의 맛을 즐기고 싶었는데 말도 못하고 ...' 이것이 달갑지 않은 친절이 아닐까? 한국은 인정이

제일 중요하다. 일본인은 잘 모를 테니까 비벼주는 것이 한국인의 인정이야. 하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맛보고 싶은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네마와시(根回し, 사전교섭) 조시대에서 전임강사로 양국 언어와 문화, 의식 비교에 대해 3년간 가르쳤다. 이 때 회의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협력을 요청하며 교섭을 했는데 도중에 포기했다. 정말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간단하게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끝이다. 한국이라면 주차문제로 싸움이 나도 주변으로 확대되는데 일본에서 15년간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 일본인은 그만큼 상황판단이 빠르다. 적이 아니더라도 느끼고 이해했기 때문인지. 회의에서도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이러한 사전 교섭의 영향은 아닐까.

양국 관계가 나아갈 방향은?

양국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아주 많은데, 민관 합해 150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다. 1년에 한 번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치밀하게 생활 속에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교류, 청년교류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내 목적이자 역할이며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은.

생전의 남편과 함께 세운 계획인데, 요양하며 회복을 돕는 치료를 지원하는 선인적 치료를 목표로 카운셀링, 멘토링, 유기농 야채를 재배를 하며 작업치료를 하는 시설을 세우고 싶다. 혼자 하기는 벅차겠지만, 남편이 하던 장학금사업이나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일도 계속하고 싶다. 10월에 설립할 한일문화연구소에서는 고령화사회와 여성재교육 워크숍, 실내 콘서트를 열고 싶다. 그리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은 있지만, 한국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은 없다. 우선 이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수저와 젓가락사용법 등의 예절과 더불어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싶다. 또 한국인과 일본인 친구를 함께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다.



무토 마사토시 대사의 한국 전통목가구 사랑

목야회 회장 함명주

이번에 제6회 목야회 전통가구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작업이 어렵고 힘든 틈틈이 어떤 분들이 와주실까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예를들어 미술대학의 공예전공 교수나, 전통공예의 명장, 무형문화재, 문화평론가, 언론사의 기자나 TV카메라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다면 많이 힘이 되지요. 또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신 주한외교관들께서도 저희 전시회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전시회가 임박한 어느 날 회원 한 사람이 “요즘 TV에서 동일본대지진 뉴스 뒤에 주한일본대사께서 나오시던데 작년처럼 올해도 대사님께서 와 주실까요?”라며 부럽고 기대에 찬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전시회는 일본의 대형연휴의 막바지인 5월 5일부터라 무토 대사께서는 본국 출장 중이라고 알려져서 참석이 어려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전시시작 이틀 전에 참석하시겠다는 전갈이 와서 회원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개회식 조금 전에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님과 스즈키 히로시(鈴木浩) 공보문화원장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날은 한국, 일본 모두 휴일이었는데도 대사님은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전시회를 찾아주신 겁니다.

무토 대사께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소목장 박명배 선생과, 제자들이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축하해주셨고 “올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었으며, 양국간의 인적교류도 연간 5백만 명을 넘는 시점이어서 이 같은 전통공예 분야에서도 서로 배우며 경쟁하는 가운데 서로 향상시키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유창한 한국어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의 전통목가구는 1950년 60년대의 공백기를 거쳐 요즘은 전통기술을 재

현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계속 재현·계승 되어야 할 우리의 것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야회 회원들은 전통목가구의 재현에 노력하면서 장인정신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전통형식의 원형에 바탕을 둔 조선목공예, 목가구의 현대적 재창조를 꿈꾸면서 나날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미를 상징하는 의연한 자태와 세련된 목공기술의 총화인 조선목가구를 재현해가는 저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야회 회원들은 무토 대사님과 스즈키 문화원장님이 전시회를 찾아주신 것을 기쁨으로 환영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대사께서 한국전통목가구 전시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간이역과 일본의 비경역

현재, 일본에서는 이른바 '비경역(秘境駅)', 한국에서는 '간이역(簡易駅)'이라 불리는 이용자가 결코 많지는 않지만 비경이 있는 역이나 풍경이 있는 역의 탐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일본의 '사진집·비경역' 시리즈의 저자인 구리하라 가게리(栗原景) 씨와 한국의 '간이역'에 관한 서적 집필자인 임병국 씨가 일본과 한국의 '비경역'과 '간이역'을 둘러싼 화제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실었다. (사회 : 사사키(佐々木) 서기관, 좌담회 실시 협력 : 사카자키 모토히코(坂崎基彦) 서울대학 대학원박사과정)

사사키 우선 어떤 경위로 철도나 철도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셨나요.

임병국 2000년 1월부터 홈페이지(lovetrain.com)를 만들어 기차여행과 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철도여행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철도역 방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600여 개의 역을 방문했는데, 철도역에는 그저 승강장만 있는 게 아니라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철도에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제 고향이 경상도 왜관(倭館)역에서 20킬로 떨어져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철도를 보러 갔었죠.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현재 활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철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여행코스인데 그 후 간이역의 기능과 역할이나 분위기, 역사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철도문화, 철도문화와 관련된 현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랑'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인 많이 타고, '통통통 뮤직트레인'은 한국인만 탑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은 철도가 좋아서 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철도 안에서도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과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서 책과 기사로 출판하려 합니다.

구리하라 프리랜서 포토라이터로서 한국 여행이나 철도에 관한 기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도 팬이었습니다. 3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당시 간다(神田)에 있던 교통박물관에 갔는데 열차 그림책 보다 '월간 철도팬(일본의 철도 잡지)'을 갖고 싶어했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저는 주로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노리데츠(乗り鉄)'인데, 학창시절에는 일본 철도 작가의 1인자인 다네무

라 나오키(種村直樹) 씨의 어시스턴트로 5년간 일했습니다. 그 후 출판사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 2001년 퇴사하여 한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포토 라이터가 된 후에는 주로 한류나 한국의 가이드북 기사를 집필하고 있으며, 철도 기사는 2005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기차여행에 관한 기사를 쓰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경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권의 사진집을 발행했습니다. '비경역'이라는 이름을 만든 우시야마 다카노부(牛山隆信) 씨와 함께 쓴 책인데 그 때부터 한국의 '간이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사키 '비경역'과 '간이역'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구리하라 '비경역'은 원래 정의로는 기차로만 갈 수 있는 주변에 길이나 집도 없는 역을 가리키는 말이며, 앞서 말한 우시야마 씨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간이역'은 도시에도 있지만 비경역은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임병국 한국에는 '간이역'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간이역에는 역무원이 있는 역과 역무원이 없는 역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의 비경역은 대부분 자동차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비경역이라 할 수 있고 비밀스럽고 특별한 경치,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일본의 '비경역'에 관한 책을 읽고 한국 '비경역'의 정의를 생각해 보았더니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구리하라 일본에서도 정말 기차로만 갈 수 있는 역은 셀 수 있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은 양국 모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키 정의는 달라도 '비경역'과 '간이역'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있나요. 그 매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임병국 '간이역'은 철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비경역'은 젊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경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차로 갈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져 '가볼 만한 역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구리하라 임병국 씨는 간이역을 열차로 가시나요.

임병국 요즘 역인데도 열차로 갈 수 없는 곳이 늘어나서 자동차로 갑니다(웃음).

구리하라 열차로만 갈 수 있다는 점이 비경역의 큰 매력이 아닐까요. 자연을 느끼면서 열차를 타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키 두 분이 좋아하는 간이역이나 비경역을 소개해 주세요.



구리하라 한국의 '간이역' 하면 양원역(사 진 ①) 좋습니다. 이곳은 임업도로 안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원래 역은 없었어요. 이곳 주민 한 분이 다리가 부자유스런 아내를 위해 역을 만들어 달라고 당시 철도청에 청원을 넣어,

1988년부터 하루에 두 차례 열차가 서게 되었습니다. 대합실이나 작은 승강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만들었구요.

어느 날 아침 양원역에 갔다가 분교였던 건물에 사는 부부를 만났어요. 일본에서 일부터 오셨으니 아침식사를 같이 하자며 초대를 받았지만 열차 시간까지 10분 밖에 없어서 사양할 수 밖에 없었죠. 그걸 놓치면 다음 열차는 저녁 8시거든요(웃음).



만남이라면 또 하나, 이날은 아침 7시를 지나 하행선 열차로 도착하고 8시 반의 상행선을 타고 영주로 돌아갔는데, 이 열차를 타고 내린 부부가 있었어요. 낙동강 반대편에서 혼자 사는 은인을 1시간이라도 만나기 위해 일주

일에 한번씩 다닌다고 하더군요. 도경리역(사 진 ②) 좋아요. 영동선이며 가장 오래된 역사(驛舍)가 있고 열차는 정차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가기 어려운 역이죠.

사사키 일본역은 어떤가요.



구리하라 고보로(小幌)역이나 오모리(尾盛)역 등 유명한 '비경역'은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역은 이바라키현(茨城縣) 히타치나카 해변철도 나카네(中根, 사 진 ③)역입니다.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비경역

은 아니지만, 주택가가 숲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넓은 논이 펼쳐진 시골다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요. 우에노(上野)역에서 1시간 30분만에 갈 수 있다는 점도 좋구요.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7월까지의 불통입니다.



임병국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등록문화재를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많은데 우선 임피역(군산선, 사 진 ④) 바다 분위기가 나는 한편 발이 보이고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솔사(多率寺, 사 진 ⑤)역의 역사는 버스정류장처럼 벽돌로 지어진 역인데 역사 안은 아담한 느낌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에도 아주 좋은 곳으로 제대로 된 역사도 없고 기차도 서지



않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철거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철거 전 보존 검토를 요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치쿠하선(筑肥線) 시카카(鹿家, 사 진 ⑥)이 좋습니다. 무인역인데 주민들이 청소하며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구리하라 내일 하카타(博多) 쪽으로 가니까 찾아보고 싶네요.



사사키 저는 요코하마(横浜) 출신인데 그 지역에 쓰루미선(鶴見線)이라는 공장지대를 지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우미시바우라(海芝浦)라는 역(사 진 ⑦)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고 공장에 가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역입

니다. 이른바 일본의 대표적인 간이역이죠.

구리하라 역은 도시바(東芝) 공장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 출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국 그 역이라면 제가 아는 철도 팬이 회사 면접을 보기 위해 구내에 들어가봤대요?
사사키 네? '일반인이 내릴 수 없는 역'에서 내린 분이 계셨군요!!

구리하라 이 쓰루미선은 원래 사철(私鐵)이었는데 사람의 이름을 딴 역이 많습다. 아사노(淺野)역이라든가 안젠(安善)역이든가. 단 최근에는 낮의 운행편수가 줄어들어 불편해졌어요.

구리하라 지난번에 임병국 씨가 잡지에서 소개한 진해선의 통해역(사 진 ⑧) 취재 허락을 받고 촬영하셨나요?

임병국 네, 기자신분으로 갔습니다.

사사키 일본에서는 비경역을 방문하는 여행이 매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해역에 가는 투어를 일본에서 모집한다면 일본의 비경역 팬이 쇄도하며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리하라 일본에서 비경역 투어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이다선(飯田線, JR 도카이)에는 그리움을 느

끼게 하는 비경역이 많은데 이곳으로 특별열차를 편성하여 여름방학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경역마다 몇 분씩 정차하는 특별한 열차로 비경역을 테마로 한 도시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사키 일본의 비경역 붐은 언제부터인가요.

구리하라 2001년 우시야마 다카노부 씨가 쇼가쿠칸(小学館) 문고에서 '秘境駅へ行く(비경역에 가자)'라는 책을 냈는데 그 때는 철도 팬 사이에서만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일반인이 비경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7년 무렵이죠. 어쨌든 철도취미로서 '역'이 이만큼 주목을 받게 된 건 처음이에요. 그때까지는 역시 열차나 차량이 중심이었거든요.

임병국 역시 한국에도 '철도 차량 팬'이 있는데 결국 일반인과의 공감점이 없습니다. 한편 '역', 특히 '간이역'은 나름대로 일반인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행한 '간이역 기행'도 한국의 철도 팬 시장이 작아서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판매량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사사키 비경역이나 간이역을 돌아보면서 생긴 두 분만의 에피소드나 인상 깊었던 점은?

구리하라 이와테현(岩手県) 야마다선(山田線, JR동일본(JR東日本)) 오시다(大志田)역은 하행선 1편, 상행선 2편밖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 네비게이션을 따라 역을 찾아갔는데 도중에 지도에 나와 있는 길이 사라져버려 어찌할 바를 몰랐죠. 다른 루트로 돌아 예정보다 1시간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비경역 사진집은 되도록 열차가 찍히지 않도록 촬영하는데, 이것은 열차가 많이 찍혀 있으면 비경이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이죠. 영업 중인 역임을 알리기 위해 간혹 열차도 촬영하지만요.



홋카이도(北海道)의 비경역을 방문하면 '곰 출몰 주의(사 진 9)라는 경고문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나타내면 어쩌나 싶어요. 역이라 해도 작은 승강장과 대합실 정도밖에 없어서, 숨을 곳이 없거든요. 말벌의 벌집을 본 적도 있죠.



임병국 정선선 구절리역(사 진 10) 석탄채굴을 위해 많이 이용되었지만 80년 대 이후 석탄을 쓰지 않게 되면서 1999년 비둘기호 운행을 마지막으로 2000년 정선선을 폐선하려 했지만 여전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몇 년

간 여객열차가 더 다녔습니다. 철도는 끊어지고 앞 산이 가로막고 철도의 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요즘은 레일바이크가 생기고 옛날 분위기가 조금 바뀐 듯해서 유감입니다. 지금은 간이역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키 일본에서는 '비경역', 한국에서는 '간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공통 테마로 양국 고유의 철도문화의 상호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임병국 저는 일본 철도문화의 수준을 부럽게 생각합니다. 간이역에 관한 책을 낼 때 출판사에서 안 팔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음식 관련 여행지도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편집을 했는데 책 뒷부분에 간이역에 대해 제가 적고 싶은 내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역이 없어지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구리하라 한국에서 철도문화재로 등록된 간이역은 대부분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에 세워진 건물인데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어 조금 놀랐습니다.

임병국 물론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의미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올 때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보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면에서 봐도 이 시기에 일본이 지은 건물과 한국이 지은 건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리하라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철도 팬은 '외국철도' 하면 대만을 제외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편 최근에는 서울, 부산, 경주 이외의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분들께 '간이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외버스를 잘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차라면 여정이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소개한다면 더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국 7년 전부터 작업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개무량합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문화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이 왔을 때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국의 철도역사와 발전에 관한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도 다루어갈 생각입니다. 간이역 관련 서적의 일본어 출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 있는 철도문화의 하나가 레일바이크인데 그 양상이 철도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철도가 좋아서 레일바이크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왔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를 타는 셈이니까요. 앞으로는 한국다운 모습을 추구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경춘선의 한류관광 열차도 그냥 춘천에 가서 차량에 배운 사진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열차 자체를 통해 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사키 앞으로도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여행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저서소개>



간이역 기행
 임병국 저서. 전국을 5개로 나눈 후, 지역별로 대표적인 4,5개의 간이역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와 매력, 기본적인 시설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록 '마니아를 위한 간이역'에서는 간이역 20여 곳 추가로 소개, 다양하고 폭넓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진집 비경역
 구리하라 가케리와 우시야마 다카노부의 공동저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홀로 존재하는 비경역의 모습을 엄선하여 수록한 사진집이다. 책의 말미에는 비경역을 방문하기 위한 가이드도 게재했다.

일본의 책, 영화 그리고 음악

해변의 카프카

저자 : 무라카미 하루키 | 역자 : 김춘미 | 출판사 : 문학사상사



23년 하루키 문학 인생의 결정체가 담긴 장편소설!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해변의 카프카' 상권. 하루키의 23년 문학 인생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인간의 근원적 명제인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꿈과 어른들이 만들어낸 현실의 틈에 자리한 미궁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고뇌하며 힘겹게 성장해 가는 열다섯 살 소년의 모습을 통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이 소설은 오이타푸스의 비극을 예언한 아버지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온 열다섯 살 소년과, 어린 시절의 기묘한 사고 이후에 모든 기억을 잃은 대신 고양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노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현실적인 인물들과 그들의 내면과 과거를 상징하는 분신 같은 존재들을 등장시켜 현실과 초현실을 함께 그리고 있다.

2011년도 5월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자료제공 : 교보문고)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상실의 시대(원제: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2	1Q84. 1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3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드래커를 읽는다면	이와사키 나쓰미	동아일보사
4	고백(블랙 앤 화이트 18)	미나토 가나에	비채
5	어떤 미술의 금서목록. 22	가마치 가즈마	대원씨아이(주)
6	스즈미야 하루히의 경이(전) (스즈미야 하루히 시리즈 10)	다니가와 나가루	대원씨아이(주)
7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7	후시미 쓰카사	대원씨아이(주)
8	전파녀와 청춘남. 3	이루마 히토마	학산문화사
9	가정교사 히트맨 REBORN 비밀탄. 2: X FIAMMA	고야스 히데아키	학산문화사
10	인간의 증명	모리무라 세이치	해문출판사
11	공중그네	오쿠다 히데오	은행나무
12	비탄의 아리아. 8	아카마츠 쉐이쿠	서울문화사
13	공의 경계 세트(전3권)(한정판)	나스 키노코	학산문화사
14	나는 친구가 적다. 4	히라사카 요미	학산문화사
15	해변의 카프카. 상(양장본)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JMIC MUSIC NOTES

miwa



20살의 싱어송 라이터 miwa.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늘 음악과 함께 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15세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다. 고교에 입학하자 기타를 배우고 고교3년부터 데뷔를 위한 본격적인 곡 제작에 들어갔다. 현재는 대학을 다니며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miwa는 2010년 3월 3일 싱글 'don't cry anymore'로 데뷔, 지금까지 5장의 싱글을 발매했으며, 6월 29일 출시될 6번째 싱글 '411'의 커플곡으로 수록된 'Chasing hearts'는 7월 2일 개봉 예정인 '강철의 연

금술사 한탄의 언덕(미로스) 성스러운 별'의 오프닝 테마로 결정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3월 3일 발매된 첫 앨범 'guitarissimo'는 오리콘 주간 앨범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6월 4일부터 이 앨범으로 일본전국투어 중이다. 올 여름 miwa의 활약이 기대된다.

JMIC 신보 리스트

[싱글]

타이틀	아티스트
さよなら傷だらけの日々よ	B'z
SCARLET KNIGHT	水樹奈々
春風 SHUN PU	豊崎愛生
縁を結いて	堂本剛
黄昏を止めて	徳永英明
T.W.I.エロー-バンジーストリート	関ジャニ∞(エイト)

[앨범]

The Apples	吉井和哉
Road Show	松任谷由実
FLOW ANIME BEST	FLOW
guitarissimo	miwa
心	北乃きい

[DVD]

KOBUKURO STADIUM LIVE 2010~ OSAKA・TOKYO・MIYAZAKI~	コブクロ
THE LIVE HOUSE ROOTS in Zepp Tokyo	矢沢永吉
LUNA SEA 20th ANNIVERSARY WORLD TOUR REBOOT -to the New Moon- 24th December, 2010 at TOKYO DOME	LUNA SEA
TUBE 25th Summer -DVD BOX-	TUBE

6, 7월 일본영화상영안내

6월부터 일본영화상영이 재개되어 '웃음과 감동의 스토리'를 담은 총9개 영화가 상영된다.

장소 및 일시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14:30~)

기사라기 미키짱(キサラギ)

상영일 : 6월 28일(화)

감독 : 사토 유이치

주연 : 오구리순, 고이데 게이스케

감독 : 야구치 시노부

주연 : 아야세 하루카, 다나베 세이이치

남극의 셰프(南極料理人)

상영일 : 7월 1일(금), 12일(화)

감독 : 오키타 슈이치

출연 : 사카이 마사토, 고라 겐고

하치이야기(八公物語)

상영일 : 6월 29일(수)

감독 : 고야마 세이지로

주연 : 나카다이 다쓰야

기쿠지로의 여름(菊次郎の夏)

상영일 : 7월 4일(월), 13일(수)

감독 : 기타노 다케시

출연 : 비토 다케시, 세키구치 유스케

아오이 유우의 편지(二ライカナイからの手紙)

상영일 : 7월 5일(화), 14일(목)

감독 : 구마자와 나오토

출연 : 아오이 유우, 미나미 가호

으랏차차 스모부(しこ、ふんじやった)

상영일 : 7월 6일(수)

감독 : 스오 마사유키

출연 : 모토키 마사히로, 시미즈 미사

감독 : 다키타 요지로

출연 : 나카이 기이치, 사토 고이치

달려라! 타마코(転がれ! たま子)

상영일 : 7월 8일(금)

감독 : 신도 카제

출연 : 야마다 마이코, 미키 커티스

해피 플라이트(ハッピーフライト)

상영일 : 6월 30일(목)

바람의 검 신선조(壬生義士伝)

상영일 : 7월 7일(목)

눈물이 주룩주룩(涙そうそう)

상영일 : 7월 11일(월)

감독 : 도이 노부히로

출연 : 쓰마부키 사토시, 나가사와 마사미

이마후지 다마미 나가우타 연주회를 마치고

지난 6월 5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마후지 다마미 나가우타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5년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사업으로 샤미센 교실을 지도해 오신 이마후지 선생의 이번 공연에는 스즈키 마사토(鈴木正人) 부위원장이 대표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연주회에서는 샤미센 교실 학생들의 발표와 함께 일본무용교실을 10년간 지도하고 있는 하나야기 슌토 선생, 국립국악원 거문고 연주자인 이세환 선생이 무대에 올라 일한 합동 나가우타 연주회를 함께했다.



LIG컵 제 21회 한일 친선 사랑의 친구 곰두리축구대회 겸 험멜코리아컵 제8회 전국뇌성마비인축구대회

5월 28일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주한일본대사관 특별후원으로 LIG컵 제21회 한일 친선 사랑의 친구 곰두리축구대회 겸 험멜코리아컵 제8회 전국뇌성마비인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장애인축구협회와 곰두리 사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11개 한국팀과 12개 일본팀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일본 뇌성마비 장애인축구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곰두리 축구단, 3위는 세븐축구단과 국제 FC가 각각 차지했다.

곰두리 사랑회는 1988년 제8회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뇌성마비 축구종목 참여를 위해 팀을 결성. 2009년 장애인축구는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축구를 통해 일본팀과의 우호를 다지고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다카마도노미야기념 일한교류기금의 다카마도노미야상을 수상했다.



가와하라 염색 작품전 스즈키 공보문화원장 방문

일본 돗토리현의 아름다운 염색을 선보이는 가와하라 부부염색가의 염색 작품전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으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에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스즈키 히로시(鈴木浩) 원장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번 염색전에는 전통작품 외에도 셔츠, 넥타이, 스카프 등 실용적인 용도의 다양한 디자인이 담긴 염색작품이 선보였다



제11회 JMIC 노래자랑대회 응모안내



Young Music Square 제11회 JMIC 노래자랑대회가 7월 29일 당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3일간의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팀가 결정되며, 입상자에게는 일본연수를 비롯하여 많은 상품이 주어진다.

특히, 본선무대는 NHK 월드방송 'J-MELO' 와 함께하며 180개국으로 방송될 예정이며, 스페셜 게스트로 한국에서는 연주 & 스파이크, 일본에서는 인기드라마 '트릭'의 주제가를 부른 구마가이 이쿠미(熊谷育美)와 'J-MELO'의 사회를 맡고 있는 May J.가 출연한다.

참고로 J-MELO는 일본과 세계를 잇는 '음악의 가교'로 영어방송 NHK월드가 180여 개국에서 방송하고 있다. 전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는 음악방송으로서 일본음악의 장점인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히트곡뿐 아니라 팝, 록, 재즈, 클래식, 트로트 등 장르를 초월한 게스트를 초대, 일본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일 시 : 7월 29일(금) 18:30~

장 소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 최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음악정보센터(JMIC)
재단법인 음악산업 · 문화진흥재단(PROMIC)

협 력 : (주)第一興商(DK KOREA), NEW WORLD PRODUCTIONS, jcm
JAPAN CENTRAL MUSIC, TEICHIKU ENTERTAINMENT

협 찬 : ANA, YAMAHA MUSIC KOREA, Nikon, 시사일본어학원,
(주)네오위즈인터넷, 채널 J

[응모안내]

일본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40세 미만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참가 신청서(이름, 성별, 연락처, 곡명, 가수명, 장르, 예선희망일 등 기입)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된다.

• 응 모 : 6월 17일(금)~7월 11일(월)

• 예 선 : 7월 15일(금)~17일(일) 13:30~

• 신 청 : 방문 및 이메일 접수만 가능 jmic@so.mofa.go.jp

• 문 의 : 765-3011(153,110)

* 자세한 사항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www.kr.emb-japan.go.jp>

1990년대 일본 회화



현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9명의 일본작가들이 1990년대 당시 30대의 젊은 나이로 어떻게 그림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찾으려 했는지를 소개하는 '1990년대 일본회화' 순회전의 서울전시가 6월 10일부터 25일까지는 당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일 시 : 6월 10일(금)~25일(토)

10:00~17:30, 일요일 휴관

장 소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 최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제교류기금

문 의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0, 123)

